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박종화



누구나 다 '메세나(Maecenas)'가 될 수 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의 후원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로마제국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설립될 무렵 제국의 첫 황제의 측근자인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메세나(70BC~8BC)의 이름에서 만들어졌다.

메세나는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소유한 예루에스 귀족층의 가문 후손으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같은 귀족층 출신의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황제의 응봉을 한 몸에 즐겼다. 황제와 나란히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제로 마제국의 행정과 외교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그러나 메세나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그의 재능이 아닌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그의 이름이다. 메세나는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시인들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했다. 베질과 호레이스 등의 천재적인 시인들을 지지하였고 호레이스에게는 절대적인 경제 지원 외에 경치 좋은 사유지까지 챙겨 주었다고 한다.

그의 후원 동기는 명예나 이윤 같은 비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문학에 대한 알파한 흥미나 허영심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니었다. 천재적인 문학가들과 지적으로 평등한 대화가 가능했던 그는 주택의 호화로운 정원에서 젊은 예술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주 즐겼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관심사 밖에 있던 주제인 정사를 수시로 논하면서 예술가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메세나를 시인들은 존경했고 그의

금까지 그 형태에 많은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왔다. 플로렌스의 트네상스를 이룬 메디치 가문, 베토벤과 리스트 같은 음악적 천재들을 지원했던 합스부르크 가문, 근대의 구겐하임 가문 역시 가문의 막강한 부와 세력, 그리고 가문 멤버들에게 강조된 광범위한 문학과 예술의 교육을 배경으로 메세나 활동을 펼친 애다. 자본주의로 들어서면서 초대 기업들도 활발하게 메세나 활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주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가족재단들의 활동에 비해 어느 정도 성질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후원 동기를 비교하자면 가족재단이 사회적 책임감과 순수한 예술에 대한 사

문화를 두 갈래로 나누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될 수 있겠다. 고급문화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 하에 빛을 내고 대중문화는 비교적 단기적인 노력 하에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얕으면 알 수록 후원 사업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크다. 장기간의 자본주의의 배경에 정신세계가 나약해진 근대 사회에 정신적 부를 가져다 줄 고급문화의 양성은 필수과제이며 이를 위해 후원자들의 교양과 지식 양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보면 메세나는 우리 개개인에게는 거리가 먼 상류층의 소유물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개인의 작은 관심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콘서트의 티켓 구매도 일종의 메세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인터넷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개인이 아예 제작 단계에서부터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능성의 무궁무진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술 후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의 교육과 함께 예술과 문학의 교양교육을 꼭 동시에 어린 시절 때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메세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피아니스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메세나(Maecenas)

지혜는 고스란히 시인들의 책에 담아졌다. 베질의 '케오르지스', 호레이스의 'オーネス'와 '에피스텔레스' 같은 문학의 보석

에서 후원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엮을 수 있는 예는 아마도 메세나 밖에 없을 것이다.

메세나는 젊은 예술인들의 후원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셈이다. 당시 신체제로 마제국에 필요했던 홍보업무를 그 시대의 하이테크 미디어였던 인쇄물을 통해서 우아하고 섹시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메세나는 자연스럽게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일부가 되었고 지

랑으로 후원을 한다면 기업들의 후원에는 보통 자기들의 매출에 관련될 유리한 조건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불론 가족재단도 좋은 이미지나 가문의 명예에 향상 등 사회에서의 득을 바라는 기대가 없진 않지만 기업에 비하면 훨씬 순수한 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재단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 조예가 깊은 반면 기업의 후원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나 인원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의 영혼이자 문명의 꽃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예술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점은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편지쓰기라 하겠다.

우리는 요즘을 소통이 무슨 인사치례 같은 SNS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비해 편지는 풍요와 사색을 담고 그 떨림과 울림마저도 촉감할 수 있는 몇몇 맛이 있다. 그렇다. 편지는 소셜미디어와는 결코 차원이 다른 질감의 소울미디어(soul media)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가들이 주는 실천예시는 '편지를 써라'가 아닌가 한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광주전남시민과 함께 하는 '예행남도 100만 편지쓰기 주간(10. 22~11.10.)'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도는 문화와 창조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그런 만큼 남도민은 변화하는 계절과 삶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 하겠다. 이에 우체국은 정과 멋이 넘치는 남도의 가을을 담아내고 싶다. 나아가 SNS 시대에 남도민이 개척하는 새로운 소통문화의 뒷이 되고 싶다.

이번 편지쓰기 행사에는 시도,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 단체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시민 모두가 참여하셔서 편지 한 통이 주는 여유와 친밀감과 감동을 나누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 크다. 벌써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코스모스 꽃에 판 공원의 한자락 벤치에서 김민기 작곡의 '가을편지' 노랫말을 읊조리며 사랑과 서운함과 용서와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드는 남도민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전남지방우정청>

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B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다. 성적인 접촉이나 주삿바늘 등으로 전염이 가능하며, 면도기·손톱깎이를 따로 사용하고 문신에 쓰이는 침 등을 조심해야 한다.

매년 10월 20일은 대한간학회가 주관하는 '간의 날'이다. 그동안 간에 대해 소홀했다면 이번 기회에 긴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보자. 먼저 간염 예방접종은 필수다. 둘째는 B형간염 보유자라면 방지하지 말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간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장기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할 경우 간단한 혈액검사로 간염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태영21내과 원장>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시설

## 불법조업 중국 선원의 비극 더 이상 없어야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 선 선원이 진압 과정에서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해경의 단속 중 중국선원이 숨진 것은 2010년 1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포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대원이 쏜 고무탄에 맞았다고 한다. 해경은 장씨를 헬기로 긴급 후송,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숨졌다

는 것이다. 해경은 '정당한 법 집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흥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단속대원이 진압 장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장씨의 극렬한 저항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단속대원이 고무탄을 사용한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참사인 것이다. 혹여라도 중국이 이

번 일을 외교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사실 중국 선원들의 불법조업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032척에 이른다. 이 기간에 38명의 해경 대원이 부상했고, 2명은 순직했다.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 때문이다. 어떤 나라라도 다른 나라 어선이 자국 수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을 막으려면 중국 측이 먼저 불법조업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비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진압과정에서 잘못 대응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외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 광주 광산업 위기,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광주시가 지난 2000년부터 육성해 온 광(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차원의 3단계 지원정책이 13년 만인 내년부터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광산업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육성에 따라 자동차·가전과 함께 광주의 3대 주력산업으로 유통망을 확장해온 광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광산업 발전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물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도 광산업이 내년에 광역전략 선도사업에 포함돼 지원된다고 하지만, 종전과 같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자칫 지난 12년간 쌓아온 광주 광산업의 발전 토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산업은 광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워온 민족 정부의 지원이 현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광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광산업 발전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물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광산업 4단계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해야 하며, 대선 후보들에게도 광주 광산업 추가 육성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대리를 이을 탄소나노 소재인 '그래핀' 육성을 도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無等鼓

한화 이글스의 코칭스태프가 확정됐다.

다. 한화는 지난 16일 김용웅 감독을 보좌할 수석코치에 김성한 전 KIA 감독을 비롯해 김종모 타격코치, 이대진 투수코치, 전종화 배터리코치, 전대영 3군 감독, 조정희 트레이닝 코치와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김용웅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에는 김 전 감독을 비롯해 김성한, 김종모, 이대진, 이종범까지 '해태 왕조'의 주축들이 모이게 됐다.

해태 왕조의 부활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 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SK에 패해 탈락한 KIA 타이거즈는 프랜차이즈 스타 선동렬 감독을 영입했고, 이순철 당시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을 수석코치로 데려왔다. 을 시즌 4강 진출에 실패해 남의 잔치를 지켜야 하는 호남팬들에게 내년 시즌은 KIA 타이거즈의 '해태 왕조'와 한화에서 봉친 '해태 왕조'의 대결을 지켜보는 재미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내년 시즌 무적 '해태 왕조'의 영웅'들이 최고의 성적을 낸 지도자와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한화에 불어넣기 위한

스타다.

을 시즌 4강 진출에 실패해 남의 잔치를 지켜야 하는 호남팬들에게 내년 시즌은 KIA 타이거즈의 '해태 왕조'와 한화에서 봉친 '해태 왕조'의 대결을 지켜보는 재미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내년 시즌 무적 '해태 왕조'의 영웅'들이 펼치는 승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 '해태 왕조'의 부활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경영지원팀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독자서비스국 2200-6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대표 FAX 222-4267〉	전시팀 2200-685	서울지사 02-773-933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